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호 【루계 제25879호】 주체107(2018)년 1월 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4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드높은 혁명적기상을 안고 모여온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넘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박광호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로두철동지, 최휘동지,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평양시내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군중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수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우리 인민에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고 나아갈 진로를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인 지난 2017년에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도전과 사상최악의 난관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바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왔으며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대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국가력량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성취되여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과학문화전선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수도의 정치사상진지를 억척같이 다지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평양시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류원신발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평양교원대학을 비롯하여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문화시설들을 현대화하고 거리와 마을들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킴으로써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해 강조하신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수도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혁명의 수도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위대한 우리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제일투사, 당정책관철의 제일선봉대가 되여야 한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평양시가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전력망비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농업전선에서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는것과 함께 시에서 내세운 건설목표들을 무조건 수행하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수도의 면모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일신시켜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해나가는 한편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도덕기강을 바로세우며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의 수도에 진정하고 문명하며 전투적인 기풍이 차넘치고 적들의 사상문화가 발붙일수 없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을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수도의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키며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평양시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일심단결의 성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보고자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린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수도의 전체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끓는 격정과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분출시켜 올해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수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가 공장들에서 활성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도록 하며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제때에 풀어주어 인민생활을 책임진 초후, 심부름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정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동평양화력발전소 지배인 정철남동지는 뜻깊은 새해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수도의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심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창조할 불같은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2면으로 계속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주체106(2017)년을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찬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긍지드높이 희망찬 새해 주체107(2018)년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새해의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며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주체106(2017)년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화산의 분출마냥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주체의 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온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7년의 첫아침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조선을 정치에서 제일, 군사에서 최강, 문명에서도 으뜸가는 이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온 한해 사생결단의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시며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민족사적사변들과 기적적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포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략적로선들과 투쟁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 령활무쌍한 령군술과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지난해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와 《9월의 열혈폭풍》에 이어 11월 29일 카장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완전성공의 《11월대사변》을 안아오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시는 민족사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군사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오르고 인민군대는 천하무적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열풍이 세차게 타올라 자립경제의 기술적토대와 자급자족의 경제구조가 보다 완비되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세인을 경탄시키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자력자강의 힘찬 동음을 울리며 수많은 새형의 화물자동차들과 뜨락또르들이 공장과 농촌으로 달려가고 어장마다 만선의 기쁨과 웃음소리 넘쳐나는 가운데 현대화된 평양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인기있고 질좋은 소비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려명거리를 비롯한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보란듯이 일떠서 조국의 면모가 눈부시게 변모되였습니다.

세계를 앞서나가는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믿음직한 토대와 경제의 자립성이 강화되고 조국의 천만군민은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불길드높이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형제산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화동지는 지금 수도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올해 농사를 더 잘 지어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실천을 통해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모든 농사일을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역안의 모든 남새밭들에 분수식관수체계를 실현하며 남새온실들을 개건하고 잘 운영하는것과 함께 우량품종의 파일나무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비배관리를 짜고들며 축산물과 버섯생산에 큰 힘을 넣어 수도시민들과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에 필요한 대용비료와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모든 영농과제들을 드팀없이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한개 구역의 농사를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 모든 농장들에 황금벌의 호풍한 광경을 펼쳐놓음으로써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손남진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한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지식인들은 당의 교육중시, 과학중시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관리를 개선완비하며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대학생들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적능력과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인재,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며 과학연구성과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질향상열풍, 실력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만들고 실험실습설비들을 현대화, 정보화함으로써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주체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최상의 교육과학연구성과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전진가》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전인민적인 총공세》, 《계속혁신, 계속전진》 등의 구호와 글발들이 씌여진 프랑카드와 손구호들을 들고 힘찬 취주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벼나갔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충천한 기상이 광장에 차넘치였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나아가는 시위참가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우렁차게 웨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웠다.

평양시군중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7(2018)년 1월 1일 중국 심양

세계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칭송

《세계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 김정일》, 《선군령장》, 《세계평화를 지켜주신분》, 《위대한 혁명생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뜨거운 인간애와 덕망으로 천하를 감동시키신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높이 칭송하였다.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만년토대와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업적을 유산으로 남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조선의 영원한 지도사상,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시였다.

이 거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해주신것이야말로 그이께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남기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담력을 지니신분이시다.

그이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1990년대 조선반도핵위기때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령장으로서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해나가는 조선의 현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은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특히 그이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자신을 불태우신 한해였다고 보도하였다.

벨라루씨신문 《싸모스또야쩰노스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흘러간 지난 6년간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애도의 나날들이였다.

조선인민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김정일동지의 공적을 열렬히 격찬하고있으며 그이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또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길의 전두에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일화전시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가 로씨야,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불세출의 대성인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우리 나라 대표부와 현지에서 사업하는 여러 단위의 일군들이 전시회개막식들에 참가하였다.

로씨야 셀료노예 호쟈이스뜨보회사 사장은 김정일화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널리 알려지고 국제화초전시회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위인칭송의 꽃을 더 훌륭하게 피워 로씨야의 많은 지역들에 널리 보급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 심양희윤매화초유한공사 부총경리는 12월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커가는 달이다, 김정일화가 태어난것은 인류공동의 경사이며 세계화초계의 특기할 사변이다고 말하였다.

중국 대련시화초협회 서기장은 오늘도 김정일화는 세계인민들로부터 태양의 꽃으로 불리우고있다,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 면 에서 계속

그는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생명선으로, 전초선으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후방사업은 정치사업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을 잘 꾸리며 축산과 양어, 온실남새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전력증산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력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형제산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화동지는 지금 수도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올해 농사를 더 잘 지어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실천을 통해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모든 농사일을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역안의 모든 남새밭들에 분수식관수체계를 실현하며 남새온실들을 개건하고 잘 운영하는것과 함께 우량품종의 파일나무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비배관리를 짜고들며 축산물과 버섯생산에 큰 힘을 넣어 수도시민들과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에 필요한 대용비료와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모든 영농과제들을 드팀없이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한개 구역의 농사를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 모든 농장들에 황금벌의 호풍한 광경을 펼쳐놓음으로써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손남진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한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지식인들은 당의 교육중시, 과학중시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관리를 개선완비하며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대학생들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적능력과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인재,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며 과학연구성과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질향상열풍, 실력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만들고 실험실습설비들을 현대화, 정보화함으로써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주체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최상의 교육과학연구성과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전진가》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전인민적인 총공세》, 《계속혁신, 계속전진》 등의 구호와 글발들이 씌여진 프랑카드와 손구호들을 들고 힘찬 취주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벼나갔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충천한 기상이 광장에 차넘치였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나아가는 시위참가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우렁차게 웨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웠다.

평양시군중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첫걸음부터 힘차게

전투장들을 끓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

인민경제 선행부문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년초부터 신년사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정치사업들을 기백있게 벌리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으로 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여 일떠섰다.

철강재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20만산소전로건설장과 강철직장, 용광로직장을 비롯한 모든 전투장들에서 신년사과업관철에로 떠미는 당일군들의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웨침소리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용광로직장에 달려나가 용해공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준 당위원회일군들의 실례를 통하여서도 이곳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잘 엿볼수 있다. 박원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접하자마자 흥분된 심정을 안고 주체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는 용광로직장으로 화선식선전선동의 무대를 옮기였다.

현장에서 용해공들에게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량없는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알려주기도 하고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도 불러주면서 심장을 쩡쩡 울려주는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들이대였다.

그에 고무된 용광로직장의 용해공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혁명적인 총공세에 떨쳐나선 첫날 하루동안에만 하여도 300여톤의 선철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로보수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리성철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토론하는 영광을 지닌 용광로직장 로제2작업반 당세포위원장 최경일동무를 비롯한 당초급일군들이 앞제를 메고 대중을 힘있게 발동해나감으로써 머칠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보수과제를 불과 10시간만에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전력공업부문 당조직들이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금지의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 및 행정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의 사상과 정신, 제기와 내용을 먼저 심장속에 깊이 쏘아박은데 기초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해설해주면서 신년사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하자 헌장정치사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전력공업부문을 중시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대중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누구나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추동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적인 총공세를 위한 첫 전투의 분위기조성에 큰 힘을 넣었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두해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때처럼 련합기업소안의 각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방송선전차의 힘찬 선률속에 붉은기들을 펄펄 날리며 집단적인 첫 출근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혁명적인 구호들과 전투적인 표어들을 추켜들고 이른아침 일터로 씩씩하게 출근하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튼튼한 모습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전력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당의 말단기층조직이며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인 당세포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참가하는 무상의 영광을 지닌 열생산1직장 보수2작업반 당세포위원장 리기섭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당세포위원장들은 전투현장들에서 격식없는 학습담화로 신년사학습열풍을 일으키면서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직극 떠밀어나가고있다.

당세포들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맹활약하니 일터마다 집단적혁신의 열기가 차넘치고 첫 전투에서부터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탄광부문 당조직들에서도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온을 낼수 있게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제기있게 진행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리동철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행정일군들이 갱막장들을 타고앉아 대중정치사업을 능숙하게 벌리면서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히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9갱막장에 들어가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진행한 초급당위원장은 그후 가족까지 발동하여 김유봉청년돌격대원들이 일하는 전투현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들어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김철수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그 진수를 뼈에 새기는 한편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누구나 학습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총공세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도록 하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당조직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는 남김없이 폭발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백두전역에 타오르는 총공격전의 불길

216사단에서

성스러운 백두전구에 자력자강의 힘찬 발걸음소리, 새해 첫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나팔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216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일념안고 첫 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216사단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들이 계절적특성에 맞게 공사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는 힘있는 방송선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은 희망의 새해에 새로운 대진군속도로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려는 돌격대원들의 힘찬 발걸음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련대별, 대대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영웅청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맹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창조한 려단에서는 올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블로크생산을 다그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평안남도련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있는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이들은 혼석운반과 혼합물보장을 확고히 앞세우고 공정간 맞물림을 짜고들어 첫날 전투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였다.

함경남도, 자강도련대에서는 온돌식 블로크양생장의 실내온도보장에 힘을 넣고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1.2배의 전투속도를 기록하였으며 성, 중앙기관대대, 남포시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성형기, 다짐기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첫날 블로크찍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자력자강의 불길드높이 618건설려단의 돌격대원들도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시작부터 공사속도를 무쌍 높이고있다.

성, 중앙기관련대의 돌격대원들은 건물의 구조적안정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기술적대책들을 세워나가면서 무봉부사마감전체중간생산공장 보조건물내부공사의 일정계획수행률을 120%로 끌어올렸다.

첫 전투에 필요한 자재들을 충분히 확보한 자강도, 량강도련대에서는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타입물의 보온과 질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절반 일솜씨로 일관을 제끼고있는 922건설려단과 량강도련대의 돌격대원들은 첫날전투에서만도 수천장의 건축용블로크를 생산하였다.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도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나르는 심정으로 새해전투에 필요한 물동량들을 신속히 운반하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전투에 진입한 216사단의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북방의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공사는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비상한 각오, 불같은 실천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새해벽두부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불타는 마음안고 작전과 지휘를 메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새 구역 조업대상들과 심명전대상들에 대한 기본굴진, 사갱굴진은 물론 여러 대상의 운반계통개건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든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일본새와 투쟁정신으로 일해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인포청년탄광과 남력청년탄광에서 총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인포청년탄광 일군들은 급진막장과 채탄막장들에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주의불빛, 당중앙의 불빛을 지켜가는 전초병답게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부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뚫고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탄광적인 생산광은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남력청년탄광에서는 다른 탄광들에 비해 막장설비들이 많은데 맞게 일군들이 설비들을 고정적으로 맡고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동발나무가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생산된다는 관점밑에 한대의 동발나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여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2갱과 청년갱, 9갱과 10갱의 탄부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회안청년탄광과 송남청년탄광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곳 탄광들에서는 생산조직이 불리하고 부닥치는 난관이 많지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증산의 돌격로를 열어제끼고있다. 다음코대를 위하여 스스로 일감을 찾아하며 집단적혁신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는 탄부들의 투쟁열의는 그대로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송남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련합기업소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자각하고 생산기지를 자체로 꾸려 많은 탄차베아링들을 보장한 그 기세로 새형의 압축기를 제작함으로써 석탄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온을 낼수 있게 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몫이 크다는것을 명심하고 석탄증산을 위한 총공세를 들이대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생산정상화의 동음 높이 울린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흥모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천생산에서 련일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나가 함께 일하면서 로동자들이 인민복무전의 전초병이라는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키며 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직포준비직장의 종업원들속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천생산의 준비공정을 맡은 직장의 로동자들은 기대조작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하면서 단위시간당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품실수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1직포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기대관리를 깐지게 하여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이들은 새해시작부터 여러기대맡아보기운동을 벌리면서 천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속에 견절방적직장의 로동자들은 기대들의 리용률을 높이면서 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공장의 수리공들도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직기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자기들이 지켜선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열의에 떠받들려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다그치고있다

기업소에서 — 라남탄광기계련합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생산을 힘있게

본사기자 김진명 촬음

발전기마다에 만가동을 보장

함경북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 발전기마다에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전력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이신작칙으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한편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비상히 고조시키고있다.

서두수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간직한 1호, 2호, 3호발전소들과 대홍단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엄간점검,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매일 계획을 130%이상 초과완수하고있다.

특히 신양양수직장, 무봉양수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갖추고 대형양수기들의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여 전력생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대주고있다.

부령발전소에서 발전설비들의 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함으로써 매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정초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도안의 전력생산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보다 큰 전력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자

올해에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향한 웅진군대오앞에 위대한 전투적기치가 나붓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주인들의 지향이 반영되여있는 이 구호는 지금 전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틀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우리 당의 구호는 옳바른 투쟁방략과 그 실천을 위한 방도를 밝혀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주는 위력한 무기이다. 당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투쟁과 전진의 진로가 명시되여있는 호소성이 강한 구호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으로 수놓아질수 있었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기세드높이 새해의 진군길에 진입한 전체 인민은 지금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 새로운 대비약적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를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올해의 혁명적구호에는 국가핵무력건설에서 거둔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자랑찬 승리는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고귀한 밑천이고 더 높이 비약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이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였다. 하지만 우리 당은 장구한 기간 지속되여온 반미대결전을 끝장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할 단호한 의지를 안고 우리 식 로케트개발의 생눈길을 과감히 헤쳐왔다. 력사의 이 나날 온 행성을 진감시키는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과 대변혁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에 이어 로케트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확고히 도달한 가장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탄생하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조국의 존엄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해준 동시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는 지름길, 탄탄대로를 마련해놓은 여기에 국가핵무력건설의 빛나는 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이제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의 담보밑에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야 할 때이다. 국방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주체조선의 눈부신 전진속도를 대표한다. 국가핵무력건설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 그 과정에 발휘된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창조기풍을 고귀한 제보로, 본보기로 삼고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자립적경제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며 전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우리 조국은 인민의 락원,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존엄떨치게 될것이다.

올해의 혁명적구호에는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최고정화이며 여기에는 오직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려는 화고부동한 립장이 백박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시련의 날에나 정법한 날에나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헤치며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이런 인민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부강조국건설의 설계도를 마음껏 펼치고 중대한 전략적결단도 내릴수 있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중첩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자는 열렬한 호소는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의 발현으로 된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는 우리 조국력사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시원이 열린 창조와 변혁의 시기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우리 조국을 존엄높고 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애국의 열정, 그 어떤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용감무쌍하게 뚫고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과 몇년사이에 전쟁의 혹심한 후과를 가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우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정신과 기풍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속에 뜻뜻이 살아있으며 더욱 높은 경지에서 발휘되고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명도자와 한마음한뜻이 되여 만리마속도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하고 영웅적인 우리 인민의 절대적지지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있기에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제압분쇄하고 군사분야에서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도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확신이다.

우리 인민모두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가 싹차넘치는 올해구호의 정신을 뼈속깊이 쏘아박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상과 본때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혁명적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기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원산군민발전소에서

매일 전력생산계획 넘쳐 수행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군민발전소에서 새해 첫날부터 전력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새해 첫날부터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결의를 안고 전력증산투쟁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는 한편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한방울의 물이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게 하고있다.

또한 발전설비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운전조작을 표준조작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증산성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전력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운전조작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엄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2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도 기술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면서 한건의 사고도 없이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언제와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언제와 수력구조물, 발전설비들의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원산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없이 뜻깊은 올해 첫 전투에 진입한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사회주의농업전선에 나래치는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상

온 나라 농장벌이 들끓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서해벌방의 덩지큰 군들은 물론 최북단의 산골농장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애국의 열정,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 기어이 다수확풍작을 부를 드높은 자각과 열정안고 첫걸음부터 기세좋게 내달리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1월의 전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과학적인 유기질비료생산에 알곡증수의 또 하나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자각한 서해벌방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흙보산비료원료확보, 각종 대용비료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안악, 배천, 재령, 신천, 연안군의 농업근로자들이 흙보산비료원료확보에 떨쳐나섰다. 가슴벅찬 화폭이 안악군에 펼쳐지고있다.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은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것을 죽으나사나 끝까지 관철하는데 다수확의 지름길이 있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이 부식토확보로 끓고있다. 이들은 매일 수백t의 부식토를 확보함으로써 전투계획을 며칠안으로 수행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흙보산비료원료확보이자 알곡증산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부식토를 실어들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 군적으로 수백대의 뜨락또르와 수많은 달구지들이 동원되여 일정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여가고있다. 앞선 대용비료생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여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을수 있는 전망이 열려지고있다.

어기에 위질세라 신천군의 농장들에서도 흙보산비료를 집적으로 생산하고있다. 군에서는 농장들사이, 작업반, 분조들사이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있다.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의 전렬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려는 불타는 열의는 분계연선 연백벌의 다수확군들의 농업근로자들속에서도 뜨겁게 발휘되고있다.

효능높은 발효퇴비를 더 많이 만들어 리용하기 위해 전투를 벌리고있는 배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유기질비료생산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거름원천이 적은 조건에서도 알곡생산량을 높일수 있다는 자각밑에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갈 열의드높이 정초부터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배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으로 하루가 다르게 실적이 뛰여오르고있다.

연안군의 습결도 거세차다.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는 책임감이 깊이 새겨져있기에 과학적인 유기질비료생산열풍이 가는 곳마다에서 일고있다.

동해지구 농촌들에서도 전례없는 경쟁열풍속에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희령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모판무식토확보를 일정계획보다 2배이상 수행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목표밑에 동해지구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더 많은 모판부식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길주, 함주, 홍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의 많은 농촌들에서 부식토확보의 된바람이 불고있으며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전과령역이 넓어지며 영농공정들이 쭉쭉 추진되고있다.

지력을 높이는데 력량을 집중

증산의 기본열쇠를 지력제고에서 찾은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종전에 비해 거름생산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다수확군들에서 들어온 새 소식들이 사람들의 심장을 높뛰게 하고있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여 룡천, 염주, 운전군에서 매일 거름실어내기를 수천t씩 해제낌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평균 1.3배의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거름실어내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끝낼수 있다.

룡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바로 이런 혁신의 창조자들이다.

첫 3일동안에만도 온 군이 떨쳐나 100여대의 자동차와 수백대의 뜨락또르, 500여대의 손달구지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근 2배의 질좋은 거름을 실어냄으로써 높은 알곡증수를 담보해가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염주, 운전군의 농업근로자들도 종전의 기록을 뛰여넘어 또다시 새 기적을 창조해가고있다.

평안남도의 다수확군들에서도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애국충정의 불길을 지펴올려 기어이 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사회주의증산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숙천군에서 혁신의 소식이 시간마다 전해지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뜨락또르와 달구지는 물론 질통으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거름실어내기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 성과는 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라는 신념을 뼈에 새겨안고 지력지상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 결과에 창조된것이다.

증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흙짤이전투목표를 지난해보다 1.5배로 높이 세우고 매일 수십정보씩 해제낌으로써 올해에 장훈을 부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평원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또다시 높은 목표를 내걸고 흙짤이를 계획보다 3일이상 앞당기기 위해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이룩해가고있는 전례없는 성과들은 천만군민의 새해진군길에 신심과 열정을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다수확운동의 선구자가 되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코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수확운동에 떨쳐나섰다.

염주군 남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영진동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올해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비롯한 다수확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다수확농장의 영예를 또다시 빛내이겠습니다. 기어이 다수확운동의 선구자가 되여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겠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우리 남압리사람들의 심장의 맹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온 나라 이르는 곳, 협동벌마다에서 우리의 미더운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해의 첫아침 누구나 이런 불같은 맹세를 안고 포전에 달려나와 련일 거름산을 높이 쌓고있다.

◇ 오늘 우리 당과 조국이 바라는 애국농민은 다수확운동의 선구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여 새 조국건설과 7.27전승의 영웅적신화를 창조하는데 공헌한 다수확농민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황금벌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애국농민들과 본보기농장들. 이처럼 우리의 농촌들에 선구자대오가 굳건한 결과 나라의 알곡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의 이 전통을 이어 과학농사시대의 다수확운동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빛내여주심으로써 도처에서 다수확자들과 다수확분조,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농장, 다수확군이 늘어난 현실은 우리를 뜨겁게 격동시키고있다.

농업전선에서 다수확운동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알곡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다수확운동의 불화를 높이 추켜들고 총공세의 앞장에 선 선구자들이야말로 진짜배기애국농민들이다.

◇ 모두가 다수확운동의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여 뜻깊은 올해의 사회주의대지에 황금벌을 펼쳐놓아야 한다.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도, 시, 군,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다수확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는 다수확운동의 제1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다수확의 열쇠는 과학농사에 있다. 재령군 복지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 작업반들에서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낼수 있은 비결은 하나같이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백가지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데 있다. 농촌기술일군들은 이 경험을 따라배워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여야 한다.

다수확농민이 애국농민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자기 담당포전에서 다수확을 내여야 온 나라에 황금벌이 펼쳐지고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분발하여야 한다.

북창군의 척박한 산골포전에서도 다수확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 정보당 20t이상 낸 선구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일으켜 자기 담당포전을 다수확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솟구쳐오른 내 조국에 쌀이 넘쳐나면 두려울것도, 못해낼일도 없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여, 모두가 뜻깊은 올해의 다수확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침으로써 사회주의대지에 황금벌을 자랑스럽게 펼쳐놓자.

과일대풍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북청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북청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전투의 첫 하루동안에 수만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포전들에 실어낸데 이어 련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과일생산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킬 불같은 열의밑에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첫 전투가 시작된 음지구는 붉은기가 휘날리고 자동차와 뜨락또르, 달구지들, 거름실어내기에 떨쳐나선 군안의 농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뜻깊은 올해에 과일생산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불타는 결의가 충만되여있었다.

음지구가 들썩하게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전투적호소, 거름을 싣고 기세차게 포전으로 향하는 자동차들과 뜨락또르들의 우렁찬 동음은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전후 천리마제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새해의 첫 전투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거름운반전투장 그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아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올해 과일생산에서 풍장훈을 부를수 있다는 신념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전과수농장에 수천t의 거름을 보내준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이 흙보산비료원료확보를 위한 전투에 진입하여 기세를 올리고있다.

이미 지난해말에 200여정보의 토지정리와 300여정보의 구렁이파기를 끝낸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뜨락또르, 달구지들에 거름을 무드기 싣고나가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거름실어내기전투는 다른 농장들에서도 벌어졌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라고 하면서 전투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특히 보천, 파하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거름을 마련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된 거름을 제때에 실어내고있다.

첫 전투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이미 결과원들에 정보당 5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낼수 있게 많은 발효퇴비와 흙보산비료를 생산한 종산, 초리, 봉흥과수농장의 근로자들, 대용농약으로 병해충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설비를 일식으로 갖추어놓고 식물성농약생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룡동과수농장, 청해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넘치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올해에 또다시 과일대풍을 안아올수 있다는 신념이였다. 하기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보록을 크게 내짚고 총공세를 벌리고있는것이다.

새해벽두에 북청땅에 높이 울려퍼진 총공세의 힘찬 발구름소리!

정녕 그것은 당의 호소에 기어이 과일대풍으로 화답하려는 북청사람들의 신념의 맹세의 힘찬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앞장서도록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희령시 원산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소석회생산에 큰 힘을

양덕군 통동협동농장에서

양덕군 통동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소석회생산을 앞당겨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를 개량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소석회생산문제가 물망에 올랐을 때였다.

뜻깊은 올해에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부쩍 높이자면 퍼니 퍼니해도 소석회생산량을 늘여야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그래야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것은 물론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각종 유기질비료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었다.

석회석은 농장주변에 풍부한 매장지가 있어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겠지만 땔감은 멀리 다른 곳에서 실어와야 하였다.

농장의 륜전기재를 총동원한다고 해도 필요한 량을 전부 실어오기는 곤난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이 문제때문에 농장의 소석회생산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군 하였었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주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때를 놓쳐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농장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농장으로 오가는 화물자동차들을 리용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량의 땔감을 해결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리가 있었다.

사실 농장으로는 매일 적지 않은 화물자동차들이 오고갔다. 이 화물자동차들이 농장으로 올 때 다른 얼마만큼이라도 싣고오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땔감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즉시 필요한 조직사업이 따라섰고 실천으로 이어졌다.

땔감문제해결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맡아지고 나선 일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를 보다 긴밀하게 해나갔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의 심금을 울려주어 그들이 이 사업을 자기 단위 일처럼 도와나서도록 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부쩍 높이기 위해 애쓰는 농장일군들의 진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해당 단위 일군들과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함께 지켜갈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장의 땔감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발벗고 도와나섰다.

짧은 기간에 농장에는 많은 량의 땔감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석회로보수를 다 그쳐 끝낸 농장에서는 소석회생산을 총전보다 앞당겨 시작하였다. 소석회생산에서 성과가 이룩될수록 농장일군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갔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성임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올해 첫 파철집중수송이 있었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철강재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성, 중앙기관의 정무원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파철수집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첫 전투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로동계급이 수백t의 파철을 자동차들에 가득 싣고 달려온 정무원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정무원들은 이곳 로동자들과 함께 파철무림작업을 하면서 올해의 철강재생산에서 보다 큰 위훈을 새겨갈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집중수송에서는 파철지원이자 강철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지난 기간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여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체신성, 륙해운성, 체육성, 인민봉사총국, 출판지도국의 정무원들이 앞장에 섰다.

조선태권도위원회,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사회과학원, 농업연구원, 과학기술전당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무한히 고무된 강선의 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당이 제시한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함경북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금속공장들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파철수집사업을 중요한 당적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도안의 일군들은 파철수집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누구나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였다.

도급기관들과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파철수집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운동으로 파철수집사업을 활발히 벌려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지난 3일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김책시와 경원군, 온성군, 화대군, 명간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파철수집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올리였다.

특히 김책시와 화대군당책임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일군들과 주민들이 파철수집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청진시에서도 시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을 발동시켜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였다.

청진철도국에서는 사령지휘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우고 화차수리와 정비를 잘 짜고들어 애써 수집한 많은 량의 파철을 금속공장들에 제때에 수송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무된 금속공장들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1일 철의 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많은 파철을 보내주어 황철의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한편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강철전선지원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사리원시, 송림시, 은파군, 황주군, 봉산군이 모범을 보이였다.

사리원시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파철수집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파철수집계획을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파철을 모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가 앞장서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파철수집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하여 많은 파철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봉산군, 황주군을 비롯하여 다른 군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떨쳐나 적지 않은 파철을 수집하였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재판소를 비롯한 도급단위들에서도 황철로동계급을 돕는 심정으로 많은 파철을 마련하였다.

도인민보안국과 사리원시, 옥산군, 중화군인민보안부들을 비롯한 시, 군인민보안부들에서도 많은 파철과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찾았다.

도책임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주체철생산에 떨쳐나선 용광로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여러곳들을 찾아 로동자들을 고무도 해주고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넘겨주면서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힘찬 지원에 고무된 황철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주체철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은파군 류정협동농장에서

은파군 류정협동농장 제6작업반에 가면 한결같은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그것은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장원들에게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여주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면 농사도 잘 지을수 있습니다.》

농장의 다른 작업반에서 분조장을 하던 권해옥동무가 제6작업반장으로 사업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업반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작업반은 모든 면에서 농장적으로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것은 작업반원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것이였다.

(농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장원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와서 처음 시작한 일이 작업반탈곡장주변에 돌담장을 새로 쌓는 일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였지만 작업계획을 면밀히 세운 그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작업이 진행된 첫날부터 탈곡장주변은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기세를 올리는 작업반원들로 떠들썩하였다.

작업반원들사이의 경쟁심은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시간이 다르게 솟아오르는 돌담장을 바라보며 농장일군들과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일솜씨에 혀를 찼다. 하여 작업반에서는 한주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돌담장쌓기를 닷새만에 끝내게 되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였다.

그때 일을 계기로 작업반원들속에서는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이렇게 권해옥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온 다음부터 작업반의 모든것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보름동안에 많은 량의 물길바닥과 양어장바닥흙을 파내는 등 제기되는 일감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지원자들을 받는것이 어쩔수 없는 일로 되여있었지만 권해옥동무는 사랑과 정으로 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켜 모내기도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끝내였다.

그런 속에서도 작업반원들은 농장적으로 진행되는 체육경기와 예술소품경연에서 작업반의 명예를 떨치였다.

그때부터 작업반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작업반, 모든 일에서 앞서나가는 작업반이 되였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룩된 성과가 아니였다.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수확고를 높이고 해마다 살림집건설을 꾸준히 내밀수 있은것도 그리고 한두해사이에 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분조창고, 차고 등을 번듯하게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다 작업반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결과이다.

지난해에도 작업반에서는 남알림기를 남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나날에 권해옥동무는 조선로동당원으로,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였으며 지난해 4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영광도 지니게 되였다.

오늘 작업반을 찾는 사람들은 작업반원들의 알뜰하고 깐진 일솜씨를 두고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이곳 작업반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신심에 넘쳐 당면한 농사차비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결사관철의 열풍으로 강선의 노을 붉게 피워가리

보산제철소 용해로직장 로동계급

철강재생산으로 당을 받들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보산제철소 용해로직장 로동계급의 심장은 지금 이런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혁명의 년대들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당과 수령을 옹위하고 조국을 떠받들어온 미더운 강철전사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모의 뜻을 받자식이 먼저 알고 따르듯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나라의 맏아들인 로동계급이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줄 물생산전투가 벌어지는 작업현장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제인협동동작으로 로동자들이 잠간사이에 원료장입을 끝내였다. 전국사이에서 무수한 불꽃이 튕겨나고 점차 로안이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용해로가 웅-웅- 더욱 용을 썼다. 계기를 살펴보던 조작공이 덩지큰 전극을 재빨리 조종했다. 로동자들이 또다시 번개처럼 움직였다. 로안을 긴장하게 주시하던 직장장 량재철동무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쇠물이 잘 익었소. 30분이나 앞당겼구만.》

우렁찬 통음을 누르며 용해작업반 반장 정철민동무의 확신에 넘친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만한 속도면 한차지는 더 해낼수 있습니다.》

출선을 알리는 구령에 뒤이어 출선구를 빠져나온 쇠물이 불꽃을 튕기며 쇠물남비에 쏟아졌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물형타들이 기운차게 돌아갔다. 충천하는 화광이 주위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은 얼마나 장쾌한가.

용해로직장의 로동계급은 이렇게 올해의 첫 전투성과를 궁지높이 기록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이것은 이들의 불덩이같은 심장이 가리키는 투쟁과 위훈의 리정표이다.

용해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창조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일념밑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이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조국수호의 최전방으로 간주했다. 우리의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원쑤들과의 판가리결사전이 벌어지는 최전방을 지켜선 전투원이라는 각오를 안고 생산돌격전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미더운 로동계급이다.

며칠전 쇠물남비의 쇠물이 넘어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었다. 쇠물남비에로 접근해야 했다. 로동자들의 가슴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그때였다. 《당원들은 나를 따르라!》라는 목소리가 작업장을 찌렁찌렁 울리며 들려왔다. 삽을 들고 쇠물남비로 달려가는 당세포위원장인 김근호동무의 모습이 로동자들의 눈가에 비껴들었다. 쇠물남비주위에 슬라그를 퍼올리는 그의 뒤를 당원들이 따라섰다. 이글거리는 쇠물의 열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결사관철의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이런 로동계급의 심장보다는 뜨겁지 못하리라. 쇠물은 이렇게 지켜졌다. 격전의 순간이 지나간 뒤 서로 부축하며 층계를 내려서는 그들을 껴안으며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런 미더운 강철전사들을 어찌 화선에선 용사라 하지 않으며 불사신이라 부르지 않으랴.

혁명의 원쑤들을 전기로에 처박아넣겠다고 하면서 준엄한 시기마다 당중앙을 결사옹위해온 강철전사들의 투쟁전통은 이렇게 굳건히 이어지고있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모든것을 해낼수 있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이들에게는 불가능이란 말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류주작업반원들은 전자석기중기대보수전투가 벌어진 지난해 7월의 나날을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무게가 수십나 되는 육중한 기중기대차를 자체로 재생한다는것은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대체차만은 전문기계공장에서 가공해오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러자면 많은 시일이 걸려야 했다. 모두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며 모대갈 때 문득 현장으로 제철소초급당위원회의 일군이 찾아왔다.

《쇠물에 녹이 쓴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소?》

느닷없이 던진 당일군의 물음이 모두를 어리벙벙하게 만들었다.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을 기다리던 당일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물론 나도 들어본적이 없소. 동무들이야 쇠물을 끓이는 사람들이 아니요. 전기로에선 온갖 잡성분이 말끔히 타버리지. 우리에게 전기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고 그속에 타버릴 잡성분이란 패배주의가 아니겠소. 그래서 내 동무들에게 기막힌 방도를 가지고왔소.》

얼굴을 붉히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눈길이 당일군이 펼쳐보이는 종이장으로 일시에 모아졌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종이장에 씌여있는 글을 보는 순간 그들은 심장이 뚝 굳어지는것만 같았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진 맹세를 결사관철의 정신, 불굴의 투쟁기풍으로 끝까지 실천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자기들을 지켜보는것만 같았다. 책임기사 김춘혁동무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중기보수를 우리 힘으로 해냅시다.》

로동자들이 한결같이 호응해나섰다. 제힘으로 해내겠다는 각오와 신심을 가지면 언제나 방도는 생기는 법이다. 김춘혁동무가 닳아버린 대체차의 이발들을 용착한 다음 연마기로 가공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류주작업반원들은 대체차를 재생하는것과 동시에 원료장입굴착기를 리용하여 생산도 중단없이 내밀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짧은 기간에 전자석기중기대보수를 끝낸 류주작업반원들이 기세드높이 혁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렸다.

출선도중에 대차를 움직이는 전동기가 멈춰섰을 때에도 부직장장 하금철동무와 로동자들은 손으로 괴대를 돌려 생산을 보장하였다.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그튼튼 갖추어진 예비부속품들과 한겨울에도 갖가지 꽃들이 피여나 로동자들의 피로를 거뜬히 풀어주는 태양열온실을 머리에 얹고 산뜻하게 들어앉은 직장건물, 번듯하게 꾸려진 문화후생시설들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자기의 일터를 당정책결사관철의 제1선참호로 여기고 후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용해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지난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얼마나 미더운 모습들인가. 얼마나 장하고 용감한 창조의 전위들인가.

이들이 이룩한 증산성과도 귀중하다. 하지만 자기들의 발걸음에 조국의 전진속도가 달려있다는 피더운 자각으로 심장들을 쇠물처럼 끓이며 한걸음의 탐보도 없이 결사관철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투쟁기풍이야말로 새 보증의 재보인것이다.

결사관철의 열풍으로 강선의 노을을 더 붉게 피워가리!

강철전사들의 이런 드팀없는 신념이 비낀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이 새해의 첫 기슭을 붉게 물들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같은 애국의 호소에 장쾌한 쇠물폭포로 화답하며 보산제철소 용해로직장의 로동계급이 올해의 전투기록장에 빛나게 수놓아갈 위훈의 발자취는 또 얼마나 뿌듯하고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조경철

언제나 밝고 깨끗하게

순천시도시시설사업소 관리1작업반 도로관리원들

새해 첫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활기와 기백에 넘쳐 순천시내 화정앞을 지나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발걸음도 씩씩하게 출근길을 다그치는 근로자들이며 부모의 손목을 잡고 종아리 토끼뜀을 하는 꼬마,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떠들썩하게 지나가는 처녀들…

이른아침부터 도로관리에 어념이 없던 순천시도시시설사업소 관리1작업반의 도로관리원들은 일손을 멈추고 그 모습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솔고 바람이 불면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도로관리원은 그 반대이다.

눈이 오거나 무더기비가 쏟아지면 깊은 밤에도 일터로 나와 도로들이 눈에 묻히거나 큰비에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것이다.

눈오는 겨울에도, 비내리는 여름에도 그렇게 도로에서 살다싶이하는 도로관리원들이다.

지난해에도 순천시도시시설사업소 관리1작업반의 도로관리원들은 자기들이 담당한 도로마다에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왔다.

지난해 3월 작업반원들이 사업소의 계획에 따라 연석찍기를 진행하던 어느날이였다. 하루작업을 마치고 모두가 퇴근준비를 서두를 때였다.

《이 연석은 면이 곱게 찍혀지지 못했군요.》

찍어놓은 연석들을 살펴보던 작업반장 안경숙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그 연석이 그대로 굳어져 도로에 놓여지게 되면 도로의 흠이 되지 않겠는가고 이야기하는 안경숙동무의 말에 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찍어놓은 연석들을 뒤돌아보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연석들에 자그마한 흠도 없이 해놓고서야 밤하늘의 별들을 머리에 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오르게 되였다.

두해전 70일전투의 나날 금천혁명사적지의 도로포장을 할 때에도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관리1작업반원들이였다.

그들은 해마다 비자루며 삽이며 곡괭이 등 작업도구들을 자체로 해결하군 한다.

언제인가 작업반원들이 다음해에 쓸 비자루를 해결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시내에서 수십리 떨어진 산으로 올랐을 때였다.

작업반에 갓 들어온 한 녀성이 년장자인 장현숙동무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여 수십년세월을 도로관리에 바쳐오고 있어요?》

그때 장현숙동무는 작업반원들앞에서 지나온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였다.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면 일이며 당조직에서 남모르는 가정적고충도 깊이 헤아려 풀어주던 일이며…

그의 이야기에서 반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8직동청년탄광을 찾으셨을 때의 이야기였다.

당시 순천시내에서 2.8직동청년탄광에 이르는 도로상태는 좋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취가 어려있는 도로에 눈물을 쏟으며 그는 전후 태성할머니처럼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였다.

그때서 더더욱 일손을 놓지 못한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업반원들은 도로관리에 한생을 바쳐가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아름다운 거리!

그 모습속에는 도로관리원들의 그토록 티없이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 슴배여있는것이다.

순천직물공장과 순천시백화점, 순천시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순천시의 곳곳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력력히 어려있다.

오늘도 순천시도시시설사업소 관리1작업반의 도로관리원들은 절세위인들께서 남기신 인민사랑의 자욱을 심장에 새기고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간다.

이런 뜨거운 심장을 지닌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거리들은 언제나 밝고 깨끗한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신현규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애국의 마음

랑림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신창수산협동조합에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날 관리위원장 김승열동무는 커다란 신심과 자부심에 넘쳐 조합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수심척의 크고작은 기계배들과 그쯘한 배수리기지, 가공장과 랭동저장고, 바다에 나가있는 배들을 지휘할수 있는 통합생산지휘실이며 과학기술보급실, 바다물실내양어장…

이제는 수산협동조합이 무슨 일이나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된것은 아니였다.

김승열동무가 관리위원장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10여년전의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곳 협동조합의 실태는 시원치 못하였다. 바다에 나갈수 있는 배라고는 자그마한 목선 몇척뿐이였고 바다물이 그대로 밀려들었다 나가군 하는 구내는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얼마 되지 않는 다시마양식장은 겨우 유지되고있었다.

그러나 수산협동조합이 걸어온 연혁을 돌이켜보는 김승열동무의 가슴속에서는 새 힘이 솟구쳤다. 그는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수산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인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에 타다남은 판자들을 수집해서 배를 만들고 집에서 모기장을 내다가 까나리그물로 쓰면서 싸우는 전선에 물고기를 보내주었다. 전후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 전국수산물생산경쟁에서 1등을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조합의 첫 로력영웅인 진승열동지를 비롯한 전세대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휴게실들과 창고들도 번듯하게 건설했다.

오늘도 이들은 새해전 겨울 갑자기 들이닥친 큰 파도로 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다시마양식장을 다시 복구하던 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있다.

끊어져나간 바줄이며 엉켜돌아가는 배들…

반장 박길연동무와 김성남, 전동철동무를 비롯한 양식작업반원들과 종업원들은 찬바람을 이겨내며 끊어진 바줄을 하나하나 이어나갔다. 겨울바람이 뼘짜게 몰아쳤으나 종업원들의 뜨거운 심장의 열기를 조금도 식힐수 없었다.

이런 지칠줄 모르는 노력이 있어 그해에도 그들은 다시마대풍을 안아올수 있었고 80hp짜리 쇠그물붕크리트배를 두척이나 무어낼수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는 6월 중순까지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에 더 높은 불고기잡이성과를 이룩할 결심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배수리를 짧은 기간에 끝낸 작전을 펼치며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답보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복한 래일을 앞당겨옵시다.》

이들은 또다시 분발해나섰다. 래일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는 법이다.

본사기자 리건일

래일을 앞당겨오는 사람들

신창수산협동조합 종업원들

랑림군산림경영소는 여름이 짧고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고산지대에서의 나무모생산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단위이다. 지난해에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8백만그루이상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오전중에 벌써 그날 거름생산계획을 완전히 끝낸 그들이지만 누구도 일손을 놓을념을 하지 않았다.

《초급당위원장동지, 이대로 나가면 이달 보름까지는 거름생산전투를 완전히 끝낼것 같습니다.》

거름이 듬뿍 담긴 질통을 지고 앞장에서 달리던 김충길지배인이 황분상초급당위원장에게 하는 말이였다.

《우리 동무들의 기세를 봐서는 10일까지도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초급당위원장의 얼굴에는 혁신의 기쁨이 한껏 어리였다.

1월 중순까지 10여정보의 모체양묘장에 정보당 50t이상의 거름을 실어낼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달리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그런 그들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철용기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해전 2월 어느날 경영소의 어느 한 방에서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10동의 나무모온실을 비롯하여 10여정보의 모체양묘장건설이라는 방대한 공사량이 일군들로 하여금 선뜻 결심을 내리기 어렵게 하였던것이다. 로력과 자재, 날씨조건 등 여러 문제들을 놓고 거듭되는 론쟁은 날이 밝아도 끝을 볼것 같지 못하였다.

그때 황분상초급당위원장의 목소리가 모두의 귀전에 울리였다.

《우리 군이 지대가 높고 날씨가 찬것이 문제가 아니라 숲을 가꾸는 우리의 심장이 뜨겁지 못한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얼마 되지 않는 양묘장에서 나무모를 3년이상 키워서는 당의 뜻대로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숲을 가꾸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애국으로 끓는 뜨거운 심장을 지녀야 한다는 그의 진정은 모두의 마음을 한줄으로 흐르게 하였다.

다음날부터 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온종일 눈도 제대로 붙이지 않은 언땅에서 잠관목을 헤치고 돌들을 들추어내며 양묘장개간전투를 벌리였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질통은 부식토를 떠어날랐고 수많은 나탄도 채취하여 양묘장을 옥토로 걸구어나갔다. 동시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나무모온실이 걸말린 10동의 살림집건설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들은 작업중에 잠간 휴식하다가도 자기들이 앉아쉬는만큼 조국의 산들을 푸르게 하는 일이 늦어진다는 마음이 앞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군 하였다.

양묘장개간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밤이였다. 너탄채취전투장에 조은정, 리광인, 유철심동무들이 질통을 지고 나타났다.

식탁에 한가지 찬이라도 더 올려놓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종업원들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그들은 산림복구전투에 참가할 사람이 따로 있는가고 하면서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을 보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하루빨리 모체양묘장을 번듯하게 꾸릴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하기에 이들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1 000㎡의 나무모온실을 비롯하여 10여정보의 모체양묘장을 일떠세워 종전에 3-4년 자래우던 나무모를 2년인에 키울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자연수에 의한 관수와 홍땅에 의한 관수를 실현하여 그 어떤 가물에도 끄떡없이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려놓아 산림복구전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

비록 크지 않아도 불같은 애국의 열정이 넘쳐나는 일터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흰눈덮인 양묘장에 뚜렷이 찍힌 발자욱들이 안겨왔다. 푸른 숲에 첫 자욱을 찍어가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조국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애국자들이 아니랴.

이곳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가꾸어가겠다고.

김국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심장속에 새겨안은 철의 진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송평관수송사업소 2중계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로 끓어번지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일 잘하는 집단,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집단으로 불리우는 직장이 있다.

그들이 바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송평관수송사업소 2중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비록 자기들이 지켜선 일터와 하는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우지 않아도 그들은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인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를 안고 정광수송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송평관수송사업소 2중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이런 글발을 뚜렷하게 새겨놓았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단순히 글발이 아니라 이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진 실천의 구호였고 행동의 구호였다.

하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부직장장으로 일하던 리하철동무가 직장장으로 임명받은것은 2004년 1월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직장의 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어리카지 사정으로 뽐프들의 가동률은 높지 못했고 작업공구나 지구들도 어방없이 모자랐다. 게다가 직장의 후방토대도 시원하지 못했다. 기능공들도 부족했다.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렇다고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데도 없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리하철동무는 잠들수가 없었다. 그러는 그에게는 지나온 못 잊을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부령군 무수로동자구의 평범한 철길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를 운전공, 작업반장, 부직장장, 직장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생각할수록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국의 재부를 지켜가는 길에 나의 지혜와 열정을 쟁그려 바치리라.

다음날 직장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직장형편이 어렵다고 좋은 때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의 힘으로 일떠섭시다.》

리하철동무의 불같은 호소에 온 직장이 떨쳐나섰다.

우선 정광중제의 정상화에 필요한 공구와 지구가 급선무였다.

공구와 지구를 만들자면 많은 과철과 쇠를 달굴수 있는 단야설비가 구비되여야 했다. 리하철동무는 지체없이 로동자들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적지 않은 내화벽돌을 수집할수 있었다.

그렇게 로를 쌓고 불을 지폈으나 저열탄이여서 쇠를 충분히 달굴수 없었다. 하지만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난관앞에 주저하지 않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송풍장치를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안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여 직장에서는 필요한 공구들을 마음먹은대로 벼려낼수 있게 되였다.

비록 크지 않은 단야설비였지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암반처럼 더욱 든든히 자리잡았다.

당시 직장의 암송뽐프는 사슬전동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쓰다보니 사슬들이 늘어나고 자주 끊어져 정광수송에서 적지 않게 애를 먹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슬전동을 감속기전동으로 개조할것을 맡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처음 해보는데다가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였지만 그때에도 직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결과 직장에서는 련합기업소의 지도와 방조밑에 어려려나 되는 암송뽐프의 사슬전동을 감속기전동으로 전부 교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때 일을 계기로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어제날의 실력으로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설수 없다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였다.

높은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여야 자강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는것을 새겨안은 직장의 일군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설비상태, 관로상태는 물론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애썼다. 리하철동무는 자신뿐아니라 종업원들도 하루일이 끝나면 기술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급기능공들을 키워내는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었다. 때로는 자신이 기술학습때마다 강사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직장의 용접공, 기능공대렬이 강하게 꾸려졌으며 그것은 그대로 정광수송성과로 이어졌다.

몇해전에 개조된 어느 한 지구만 보아도 그렇다.

이 지구는 임의의 장소에서 정광수송관이 파렬되였을 때 쓰이는것인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았다. 리하철동무는 당조직의 지지와 사업소기술자들의 방조를 받아 이것을 개조하여 정광수송을 중단없이 보장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날이 갈수록 직장에서는 기술학습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으며 누구나 기술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열심히 배웠다.

이 나날에 직장에는 자체의 기술력량은 물론 자력갱생기지들도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또한 해마다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였다.

직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부업지를 개간할것을 결심하고 일군들은 험한 산발을 오르내렸다. 리하철동무는 로동자들과 가족들을 불러일으켜 돌밭을 정리하고 첫 씨앗을 묻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훌륭한 작황을 안아왔다. 이어 직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속사와 온실, 버섯재배장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풀판조성도 힘있게 내밀었다.

직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하나하나 축성되고 후방사업도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자 리하철, 리영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직장안팎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릴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무실건물과 문화후생시설이 련이어 일떠섰으며 작업반휴게실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모되였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자체로 건설한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만 보아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닌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이 얼마나 두철한가를 잘 알수 있다. 부방의 강추위속에서도 정광수송을 정상화할수 있게 수천t능력의 실내저광장을 새로 꾸릴 때에도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섰다.

오늘 2중계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화려된 일터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된 직장구내에서는 뽐프들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리고 구내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들고있으며 축사에는 여러가지 집짐승들이 욱실거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방목지에는 염소떼가 흐르고 온실에서는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 종업원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준다.

이 나날에 직장의 모든 작업반들은 3중26호모범기대작업반으로, 직장은 26호모범기대영예상과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자랑도 지니게 되였으며 2중계직장은 련합기업소적으로 손꼽히는 본보기직장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모습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뼈속깊이 체득한 자강력의 강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미더운 전초병들의 모습

2.8직동청년탄광 11갱 채탄3중대 소대장들인 류경수, 윤금남, 김혁철동무들의 일욕심은 간단치 않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이 많아야 경제전선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이들은 이신작칙으로 대오를 이끌며 석탄증산투쟁의 앞장에서 구보로 내달리고있다.

석탄을 가득 싣고 기운차게 달리가던 전차가 고장으로 멎어섰을 때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고 전차를 밀고나가 그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한 일이며 뜻밖의 정황으로 전진막장에 난관이 조성되자 비록 소대가 맡은 과제는 아니였지만 다른 소대를 위하여 막장을 보수해준 사실 등 결사관철의 의지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떨치며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믿음직하게 열어나가는 이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는 탄부들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하기에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해마다 소대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해온 이들을 가리켜 일욕심많은 채탄소대장들, 탄광의 미더운 전초병들이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사회주의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신 특출한 업적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세네갈, 도이췰란드, 벨가리아에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대원수각하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서의 전략적지위를 차지하고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발전시키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선군의 보검으로 사회주의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며 국방력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해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과 성원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희세의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막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벨가리아 브라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공보쎈터 관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그이이시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이시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을 세상사람들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고있다, 이런 제도를 지키고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안아오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정당하며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 쓰르비아, 벨가리아, 베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끼르기즈스딴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이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천리혜안의 예지에 의하여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존엄떨쳐왔다.

벨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시다,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신것은 그이의 가장 큰 업적들중의 하나이다,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간직하시였기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업적중에서 중시하여야 할것은 바로 선군업적이다.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로씨아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우표 및 수공예품전람회, 회고음악회, 영화감상회가,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좌담회들이, 메히꼬에서는 강연회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등이 전시되여있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던 시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더욱 만방에 떨쳐갈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프레스회사 사장, 알람바하기아 버르싸마회사 사장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 대의원 올레그 베베제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건설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현실은 군력이 강해야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1비서 웨.베.이싸꼬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번영과 로조판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로씨야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누르딘 후르노보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조선이 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추고 주체의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는것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때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로페스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찬양하고 그이의 사상과 위업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해 드팀없이 계승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출판보도물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이 그이의 태양상과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으며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리론들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조선의 부강번영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만년토대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이 힘차게 밀려고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김정일령도자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신문 《자브뜨라》는 《흰눈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한생을 회고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흰눈이다.

그이의 한생은 흰눈과 같은 순결한 생애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있어서 자신을 위한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폭잠으로 피로를 푸시면서도 도처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과 새 집들,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조국앞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기념비와 동상들을 세워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시였다.

먼 외국땅문의 길에서도 두고 온 인민들을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김정일령도자의 고결한 한생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신문 《무반 쎄고드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예술의 거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로름》은 《조선인민의 김정일령도자의 서거 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된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련방공산당 노보씨비르스크주위원회, 이르꾸쯔크주 동부씨비리출판사는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영생하시는 조선인민의 김정일령도자》, 《김정일, 자주정치의 거장》이라는 제목들로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찬양하는 글들을 올렸다.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회고모임이 지난해 12월 16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임장소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스웨데에,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나라들의 진보적정당,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스웨데에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스웨데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 유하 끼엑씨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창적인 선군정치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미제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며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을 찬양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밀실야합, 리면합의! 12.28한일합의 즉시 폐기하라!》

남조선평화단체 대전에서 투쟁 전개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즉시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지난 27일 공개된 성노예문제《합의》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2015년 12월 28일 성노예문제《합의》가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밀실야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이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2년전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가 발표될 때 각계가 강도적《합의》와 다름없는 매국협상이라고 분노를 터쳤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합의》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그 굴욕적인 《합의》과정의 전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부》가 매국문서인 합의문을 전면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합의》폐기와 동시에 미국의 리익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초래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비공개《합의》에는 《정부》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해결》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노력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의 사용을 반대할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굴사동맹강화를 위한 미국의 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것이라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현 《정부》가 일본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일본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10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일본정부에 성노예범죄력사를 외곡, 부정하는 일제의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밀실야합, 리면합의! 12.28한일합의 즉시 폐기하라!》, 《화해, 치유재단 해산하라!》, 《전쟁범죄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10억¥ 즉시 반환하라!》, 《한반도정화위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시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웨쳤다.

남조선단체 개성공업지구를 결딴낸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성공업지구를 결딴낸자들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는 개성공업지구가동에 대한 중단조치가 당시 박근혜의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였다는 소식에 억울함을 금할수 없었다고 개탄하였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것이 민주주의인가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단체는 《정부》는 위헌, 위법적으로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시킨데 대해 국민앞에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원상복구의 원칙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재가동시켜야 하며 김관진, 홍용표를 비롯하여 중단시키는데 가담한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버림받는 인생, 사회의 우환거리

쎄고 병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우환거리로 되여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다. 배움의 권리, 로동의 권리를 빼앗긴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패륜패덕과 사기협잡, 폭력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악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

돈이 없어 깨여져 나가는 배움의 꿈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학비때문에 청소년들의 배움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있다.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학비를 제대로 물지 못하여 중퇴하는 학생들 또한 부지기수이다.

미국에서는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학비로 하여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년들이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매해 고등학교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당하고있다.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이 대부금을 받아 공부하는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빚진 돈을 갚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대부금을 받아쓰고있지만 그것은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직업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것은 거의나 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결국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빚쟁이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앞길이 막막해진 그들이 갈길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비관과 절망에 빠진 청년실업자들

《만민평등》, 《복지사회건설》을 입버릇처럼 외우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이지만 실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 한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만도 24만 1 000명에 달하였다. 만성적으로 수백만명의 실업자대군을 가지고있는 미국에서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실업자수는 전체 실업자수의 약 20%를 차지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뒤르끼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24살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20-30%에 달하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문제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국제로동기구는 지난해에 청년실업자수가 7 000여만명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실업이 곧 죽음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반인민적제도하에서 사는 저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도 있으며 타락변질되여 범죄에서 삶의 출로를 찾는 청년들도 있다.

패륜패덕과 범죄의 나락에 굴러떨어진 청년들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은 귀중한 청춘시절을 살인과 절도, 마약사용 등 각종 범죄행위로 보내고있다.

미국식문명은 청년들속에서 말세기적풍조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미국 워싱톤주의 무킬테오에서 19살 난 청년이 살림집에 뛰여들어 3명을 총으로 무참히 쏘아죽이는 참극을 빚어냈는가 하면 죠지아주의 애틀란타시에 있는 지하철도역에서 30대의 청년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4명을 사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에는 콜로라도주에서 한 청년이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자기 할아버지를 구타하여 그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으며 2015년에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60대의 교원을 교실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패륜패덕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언제인가 유럽의 한 청년문제연구조직이 50여개 도시에서 24살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남의것을 도적질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었으며 절반의 청년들이 이미 마약을 사용해보았다고 거리낌없이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청년들의 모습이다. 쎄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제도가 청년들을 온갖 패륜패덕과 범죄의 길로 떠밀고있다. 황금만능, 악욕강식,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청년들의 운명은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사회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고있는 청년들의 비참한 모습은 자본주의사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 나라와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청년문제가 해결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는 자본주의는 전도가 없는 사회이다.

정 원 준

남조선청소년단체 일본의 과거침략범죄를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서울겨레하나에 소속된 청소년단체 성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에서 일제가 감행한 과거침략범죄를 규탄하여 시위투쟁을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라는 글발과 구호판들을 들고 과거침략범죄를 사죄하지 않고있는 일본당국을 단죄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였다》, 《몽둥이에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던 강제징용자들의 비명을 잊을수가 없다》 등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일제강점시기의 참혹상을 보여주는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피해자들은 차거운 바다밑에 그대로 묻혀있다》, 《군함도는 감옥섬!》, 《군함도는 귀신섬!》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일명 군함도로 불러우는 하시마탄광을 비롯하여 식민지침략정책의 산물인 과거 산업시설들을 《산업혁명유산》으로 등록할것을 유네스코에 신청하면서 《군함도 탄광에서의 소년강제징용은 날조된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데 대해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합의》가 이루어진것을 전후로 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에 나가는분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위투쟁을 준비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인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히였다.

각계층 주민들이 《고맙다.》, 《장하다.》, 《추운 날씨에 청소년들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온 모습이 기특하다. 성노예〈합의〉가 벌써 2년이나 되였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생생하게 와닿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전라남도 라주시에서 조류독감 발생

지난해 12월 29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전라남도 라주시 공산면의 한 오리목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이 목장에 대한 검사결과 H5형조류독감비루스가 검출되였다.

라주시는 전라남도지역에서 오리고기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남조선에서 계속 확대되고있는 조류독감으로 하여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가시지 못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공업지구 건설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운 공업지구건설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2018년 3월에 운영을 시작하게 될 이 공업지구는 부지면적이 270㏊에 달하며 여기에는 의약품공장들이 자리잡게 된다.

현재 공사계획의 75%가 완공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15개의 공업지구를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

경제 장성

뮤니지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제가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장성하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예방접종사업

만마의 라진주에서 최근 일본뇌염예방접종이 진행되였다.

주의 14개 지역에서 20만여명의 5살미만 어린이가 왁찐을 접종받았다.

주에서는 총 1 40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왁찐접종을 실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타일 수출

이란에서 지난해 11월까지의 8개월동안에 850만㎡의 타일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이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리트바와 호르바트까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같은 날 마로끄와 부르끼나파쏘는 사법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지열발전소건설 계획

에티오피아에서 2개의 지열발전소건설을 계획하고있다.

총발전능력이 100만kW에 달하는 이 발전소들은 8년내에 완공되게 된다.

발전소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는 1 000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할수 있는 지열자원이 있다고 한다.

국내총생산 장성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3.5% 장성하였다.

2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미국신문 트럼프가 집권이래 약 2 000번 거짓주장을 하였다고 폭로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최근 취임 1년을 맞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집권이래 2 000번 가까이 거짓주장을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트럼프의 각종 인터뷰와 연설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약 1년간의 집권기간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을 한 발언은 모두 1 950건으로서 하루평균 5.6건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말 신문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30분동안에 24가지의 엉터리주장을 펼치는 등 그의 거짓주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있다고 신문은 조소하였다.

새해 경제과업에 대해 언급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가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정부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부문에서 생산경쟁에 힘을 넣어 다음해의 국내총생산장성률을 3.5%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가은행의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수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 대외채무를 평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트럼프의 뻔뻔스러운 처사를 비난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지난해 12월 31일 내각회의에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뻔뻔스러운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란인들에 대해 그 무슨 《통정》을 표시한것과 관련하여 그가 바로 몇달전에 이란인들을 《테로분자》로 몰아붙이던 때의 일을 잊어버린것 같다고 조소하였다.

이란인들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진 트럼프는 이란인들을 《통정》할 권리가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 올레그 부르미스뜨로브가 2일 인테르화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엔안보리사회제재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모두 반대하는 립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추가제재가능성에 대해 이것은 과도한 조치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에 유엔안보리사회가 평균 3개월에 한건씩 대조선《제재결의》를 채택한데 대해 비평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각종 사고

파키스탄의 신드주에서 지난해 12월 24일 2대의 려객뻐스가 정면충돌하여 10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 에칠트의 떼니수에프지역에서 교통사고로 1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나이제리아의 카노주에서도 달리던 자동차가 방향을 잃고 길옆의 건물을 들이받아 11명이 죽었다.

이날 필리핀의 다바오시에 있는 상점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7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중국의 운남성에서 뻐스전복사고로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탄자니아의 탄가니카호에서는 2척의 배가 충돌하여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테로공격사건 발생

에질트 까히라시의 남부교외에 있는 한 교회당주변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2명의 테로분자가 사람들을 향해 총사격을 가하여 9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나라 내무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빼던 무장악당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폭발물치피대가 교회당근처에 설치되여있던 폭탄들을 해제하였다.

일본의 침략무력증강책동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무력증강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일본방위성이 항공《자위대》에 스텔스기능을 갖춘 수십대의 《F-35》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기도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것으로서 그것은 지역에서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국의 살인도시-시카고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지난해에 숱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6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평균 1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수는 3 540여명에 달하였다.

시카고시는 살인도시로서 지난해에도 살인범죄건수에 있어서 일자리를 차지하였다 한다.

이 나라 신문 《시카고 트리뷴》이 밝혔다.

물가 인상

에스빠냐에서 지난해 12월에 물가가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1.2%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810029(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